

# 광주 학교 90% '1월 졸업식'... 사라진 봄방학

새학기 교육과정 조정 등 효율 시교육청도 적극 권장 공문 맞벌이 가정·사교육비 부담 길어진 겨울방학 부작용 우려도

광주지역 초·중·고교 313곳 중 89.5%에 달하는 280곳이 이달 졸업·종업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난달 졸업·종업식을 치르고 일찌감치 겨울방학에 들어간 학교는 7곳(2.2%)으로, 과거 '졸업식은 2월'이라는 공식과 같았던 '2월 졸업식·종업식'을 유지한 학교는 불과 26곳(8.3%)에 그쳤다. 특히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55곳 중 143곳(92.3%), 중학교는 전체 91곳 중 88곳(96.7%)이 이달 졸업·종업식을 열고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대다수 초·중학교가 1월 졸업식을 택한 것이다. 그나마 고등학교의 경우 67곳 중 49곳(73.1%)을 제외하고, 경신여고와 송원여고 등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17곳

(25.4%)이 2월 중순 졸업식을 연다. 이처럼 졸업식이 앞당겨짐에 따라 대다수 학교들은 1월 개학 후 2월 하순 봄방학을 거쳐 새 학기가 시작하던 것과 달리, 봄방학을 건너뛴 채 겨울방학이 끝나면 곧장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도 올 학기 초 관내 학교에 '12월 겨울방학' 대신 '1월 겨울방학'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겨울방학 기간을 조정해 학생들이 방학 동안 자기계발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효율적인 학급 운영과 새 학기 준비, 교육과정과 감사 및 회계기간 일치 등을 위해 겨울방학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교단 의견도 반영됐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당겨진 졸업시즌에 겨울방학이 길어지는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광주외 한 학부모(광산구 삼암동·42)는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학원 1~2곳을 더 보내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1월 졸업식'이 증가하면서 기숙학원들이 입소 대상을 초·중학생으로 확대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고액의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가중되는 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설맛이 직거래장터 설을 앞두고 광주 북구청과 농촌지도자회 지산연성지회가 13일 북구청 앞 광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직거래 장터는 15일까지 열린다. /김진숙 기자 jeans@kwangju.co.kr

##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단속 110·128로 신고 하세요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인 14일부터 31일까지 환경 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100여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와 화학물질 업체, 850여개 환경 기초시설을 상대로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특별 감시·단속은 환경 오염 예방 조치를 알리고 자율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1단계(14~23일), 연휴 기간 상향식 운영·취약 지역 순찰 강화 등 환경 오염 사고에 대비하는 2단계(24~27일),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정상 가동을 지원하는 3단계(28~31일)로 이뤄진다.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환경청과 17개 시도 소속 환경 공무원 680여명이 참여한다. 환경 오염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110 또는 128)로 신고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 해질 17:42 / 달뜨기 21:36 / 달지기 10:19

기대리던 눈소식  
대체로 흐리고 눈 또는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리고비/눈	-1/6	보성	흐리고비/눈	-2/5
목포	흐리고비/눈	-1/4	순천	흐리고비/눈	0/6
여수	흐리고비/눈	0/4	영광	흐림	-3/5
나주	흐리고비/눈	-2/6	진도	흐리고비/눈	-1/5
완도	흐리고비/눈	0/6	전주	구름많음	-2/5
구례	흐림	-2/7	군산	구름많음	-3/5
강진	흐리고비/눈	0/6	남원	구름많음	-3/5
해남	흐리고비/눈	-1/5	흑산도	흐리고비/눈	0/6
장성	흐림	-3/6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안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북)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면바다(남)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서부	안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서)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면바다(동)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 생활지수

눈	높음
감기	높음
뇌졸중	높음
미세먼지	중음

◇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각	시각	시각	시각
목포	09:40	04:24	22:18	17:08
	05:14	11:48	17:49	23:59

◇ 주간 날씨

날짜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날씨	☁	☁	☀	☀	☁	☀	☁
기온	-2/5	-2/6	-1/6	-2/7	-1/7	1/7	-1/8

## 광주 동구 29일까지 '청년인턴 지원' 사업장 모집

광주시 동구가 '마을일터 청년인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선정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마을일터 청년인턴 지원' 사업장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문화·관광·관광·교육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기준요건을 통과한 사업장에는 청년과 매칭할 수 있는 일터로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청년과 매칭된 19개 내의 사업장은 9개월간 청년 인턴비의 90%를 지원받는다. 단, 인턴비의 10% 및 기업분 4대 보험료는 사업장이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구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구비서류를 청년체육과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지속가능성 일자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장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 광주 북구 '부서별 일자리 관리제' 목표 초과 달성

광주시 북구가 지난해 21개 부서 76개 사업과제에서 1만 25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부서별 일자리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목표인 1만 959명 보다 1563명이 늘어난 목표대비 114%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9996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했고 301명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했다. 인프라 구축 7건(용서비스 992명, 고용장려금 1140명, 창업지원 163명 등)의 실적도 냈다. 북구는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여성일자리 등을 창출해 다양한 분야에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은퇴자들의 사회공헌 사업·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대기업과 지역 우수 기업 등이 협력하는 자리인 '2019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를 마련해 일자리를 지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현대사 비극 '여순사건' 아픔 그린 영화 나온다

'동백' ... 오는 3월 크랭크인 10월 19일 전국 개봉

1948년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제작된다. 13일 영화 제작사인 해오름 ENT(대표 신준영)는 영화 '동백'을 제작중이라고 밝혔다. 제작사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해 11월 시나리오 작업을 마쳤다. 연출은 영화 '싸움의 기술'과 드라마 '폴리스라인' 등을 연출한 김희성 감독이 신준영 해오름 ENT 대표와

공동으로 맡게 된다. 총 제작비는 30억 원 안팎이며, 러닝타임은 약 2시간이다. 주요 배우에 대한 캐스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배우 박근형과 양미경, 김보미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영화 촬영은 여수와 순천 등의 드라마 세트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제작사는 오는 3월께 크랭크인에 들어가 6월 여수에서 시사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 개봉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10월 19일에 할 예정이다. 영화 '동백'은 1948년 여수의 한 국립 집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한국 현대사의 '한 가족'이 겪는 아픔을 담았다. 배고픈 사람에게 국밥 한 그릇을 줬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빨갱이로 몰려 숨지고, 어머니

도 고문을 받는 등의 내용을 통해 여순사건의 비극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오름 ENT 신준영 대표는 "지난해 여수에서 '동백'이라는 웹드라마를 촬영했다"며 "웹드라마로는 여순사건을 전부 담지 못한 데다 예산상, 제작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여수시의 제안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영화를 준비하면서 여순사건 유족들을 만나 이들의 아픔을 들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영화가 유족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해양경찰청, 설 앞두고

### 해양안전 특별대책 추진

해양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해양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 태세 확립, 해상경비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등을 추진한다. 해양오염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 활동을 벌이고, 공작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여객선·유선·도선을 대상으로 안전장비와 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활동도 펼치고 기름이나 유해 액체 물질을 보관하는 저장소 등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 활동도 벌인다. /정병호 기자 jusbh@

